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emotional solidarity of local residents on tourism development support:
 Focusing on the near Hongdae area

이 재 현** · 정 철***

Lee, Jaehyun · Jeong, Chul

요약 : 오늘날 국내관광이 주목받음에 따라 지역관광도 변모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관광지로 조성되면 구성원이 다양해져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광지는 관광지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의 장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홍대 인근에 거주하는 302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 사회 애착이 부(-)의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와 정서적 연대는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홍대 인근 지역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마포구 행정기관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홍대 인근 지역 관광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홍대 인근 지역, 지역주민,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 지지, 사회교환이론

ABSTRACT : As domestic tourism gains prominence today, local tourism is also undergoing change. When a community is established as a tourist destination, its members diversify, resulting in a variety of situations. Before becoming tourist destinations, communities are inhabited by the local populac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emotional solidarity between locals and tourists on tourism

Received March 07, 2022 Revised May 19, 2022 Accepted September 27, 2022

* 이 논문은 제91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This paper was prepar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aper that presented at the 91th TOSOK conference.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과정. wogus11224@hanyang.ac.k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jeong7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development support. It was conducted from January 7 to February 28, 2022 via an online/offline survey of 302 Hongdae-area residents,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hypothesis, emotional solida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costs, and community attachment, and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costs, and community attachment had both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s on government trust. Third,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costs had a positive (+) effect on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but the research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because of the negative (-)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Finally, it was discovered that government trust and emotional solidar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and th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in the Hongdae region.

Key words : Near hongdae area, Local resident, Emotional solidarity,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ocial exchange theory

I.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국내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강현수(2021)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관광 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관광자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22.5%에서 2021년 51.8%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여행 의향률 또한 45%에서 51.8%로 상승하여,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도 변모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관광지로 조성되면 지역주민, 관광객, 외부인, 행정기관 등의 증가로 지역주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이상훈, 고동완, 2017; Huang & Stewart, 1996). 관광지는 관광객에게 있어 관광활동을 위한 장소이지만 지역 핵심 구성원인 지역주민에게 있어 관광지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관광지를 관광객이 한시적으로 체류하며 관광하는 일원적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공동의 장소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용희, 박운정, 2018). 공동체적 입장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가 근래에 들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

정 장소에 대한 공동의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서적 연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적 연대는 연대론에 기초하여 발전된 개념으로 통합과 연대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Woosnam, 2008).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대론을 차용하여 논의한 기존 연구들이 몇몇 존재하나 지역사회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맹점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경제적인 영향보다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2015).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경제적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라도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문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적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Xue et al., 2015).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홍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서적 연대와 개인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사회교환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홍대 인근 지역(서교동, 상수동, 동교동, 연남동)은 1950년대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부터 홍대미대와 소극장, 카페, 클럽 등이 들어

오며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왔다. 홍대만의 장소성과 특수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홍대 총학생회 주도하에 시작된 거리 미술제를 개최한 때이다. 거리 미술제는 홍대 인근 지역을 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작업공간 및 유흥공간이 홍대 인근 지역에 밀집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홍대 인근 지역은 모든 것이 중층화된 복합문화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최준란, 2016). 서울관광재단의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1,7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시 주 방문지역으로 홍대(2위)를 꼽았으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에서 집계된 한국여행 중 서울지역 방문지 통계에선 2020년 기준 신촌/홍대가 서울 관광지 중 방문자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홍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명소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연대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Winkel & Woosnam, 2014) 홍대 인근 지역은 정서적 연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홍대는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 자연스럽게 개발된 관광지로서 홍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최종적으로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관광지는 관광개발과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공유하는 곳이자 전 세계인이 한 지역에 모이는 특별한 장소이다. 특히 홍대는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나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산 감천 문화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북

촌(北村)이나 서촌(西村)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자에 대한 홍대 인근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 지역사회 애착이 정부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에 대한 홍대인근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마포구 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게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정서적 연대

연대는 프랑스 법률 용어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공동체 책임의 의미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 간 유대감이 강한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사회나 집단에서 보이는 사회적 관계정도로 해석되고 있으며(Wallace & Wolf, 2006)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동체적 입장에서 정서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등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다는 정서적 연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Woosnam, 2008).

정서적 연대(emotional solidarity)는 Durkheim (1893)의 연대론에 기초하여 후대 Collins and Loftus (1975)에 의해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정서적 연대는 본인과 타인과의 이분법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통합(integration)과 연대(solidarity)

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믿음과 행동을 공유함으로써 주로 형성된다(Woosnam, 2008). 정서적 연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서적 친근감(emotional closeness),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 그리고 환영본성(welcoming nature)이 있다(Woosnam, 2011).

먼저 정서적 친밀감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광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점을 인식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 간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물리적으로 밀접한 관광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 관광객과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된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적 연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알려져 있다(Woosnam, 2012).

두 번째로, 공감적 이해는 지역주민이 관광객과 동질감을 느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은 관광객을 바라볼 때 본인의 여행 경험을 기반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관광객간 접촉이 잦은 관광지일수록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관광객 행동을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객에 대한 호의적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관광개발에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정서적 연대를 설명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oosnam, 2012).

마지막으로 환영본성은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개인적인 관심과 관광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역주민의 자부심 그리고 편익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뜻한다(Woosnam, 2011).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환대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관광객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환영본성은 정서적 연대를 구성

하는 세 요소 중 관광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 관광개발에 핵심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sani et al., 2016).

2. 사회교환이론에 따른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Homans (1958)에 의해 의미화 되었다. 그는 사회교환이론을 인간이 타인에게 보수와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관한 보답을 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느끼게 하는 교환관계라고 하였다. 사회교환이론은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Winkel & Woosnam, 2014). 이 이론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관찰 가능하기에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Ap, 1992).

오늘날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을 지역주민이 직접 느끼기 때문이다. 관광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투자비용 확대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음, 쓰레기 증가 등이 있다(Nunkoo & Smith, 2013).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면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지지하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면 관광개발에 반대한다. 교환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역주민은 편익에 대한 영향이 있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관광개발에 대한 비용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Zuo et al., 2017).

다수의 선행연구(김보경, 조광익, 2016; Nunkoo, 2015; Sher et al., 2015)에서도 사회교환이론에 따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그리고 정

부 신뢰 간 검증 실시하였다. Nunkoo (2015)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주민 391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혜택이 정부신뢰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r et al. (2015)는 Malaysia의 Sabah에 거주하는 166명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관광개발지지 간 관계를 규명하였고 그 결과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지각된 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보경, 조광익 (2016)도 사회교환이론을 활용하여 지각된 혜택이 지역사회 애착에 어떠한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3. 지역사회 애착

애착(attachment)은 프랑스어인 *attacher*에서 파생되었다. 서로 달라붙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Bowlby, 1984). 애착은 주민의 삶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Vesey & Dimanche, 2000). 사람 간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쉽게 변하지 않고 상호 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ll & Tasaki, 1992).

관광연구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형태를 지역과 지역의 정서에 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인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관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이 존재한다(한지훈, 2011).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사회 애착은 전통 문화 등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사회를 평가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개발과 사회교환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 변수로 활용되어지고 있다(McCool & Martin, 1994).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 연구(Adongo et al., 2017; Morales et al., 2018)가 진행되고 있다. Adongo et al. (2017)은 Vietnam의 Hoi An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해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Morales et al. (2018)은 Dominican Republic의 Puerto Plata에 거주하는 576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이원분, 유용상, 2014; 이제용, 김영표, 2020)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용, 유용상 (2020)는 안성바우덕 축제를 중심으로 장소애착이 관여도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장소애착은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원분, 유용상 (2014)은 울산 솔마루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애착도, 지방정부 신뢰 간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연구 결과 지역애착이 지방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모든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다(Moorman et al., 1993). 특히 상호의존 수준이나 파트너 능력, 몰입 혹은 사전 관계 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며 해당 속성들은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Zeffane & Zarooni, 2012). 신뢰는 대상에 따라 정부신뢰, 사회신뢰, 조직신뢰 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정부신뢰는 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명철,

2018).

정부신뢰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에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수용하는 심리적 태도를 뜻한다(Welch et al., 2004). 정부신뢰는 관광산업과 지역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관광정책 수립이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결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냉소주의를 보이거나 관광정책 추진활동에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Erikson & Tedin, 2019). 관광정책 추진 활동으로는 관광개발이 있으며 관광개발은 관광과 개발의 복합적 용어로 양적, 질적 변화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Inskeep, 1991). 즉, 정리하자면 정부신뢰가 있는 지역주민은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관광개발 지지란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로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의지를 뜻한다(Nunkoo & Ramkissonn, 2011). 관광개발 지지는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박상현, 임형택, 2021) 특히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교환과정 참여의지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Ouyang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관광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서재연 외, 2021; 정승훈, 2019). 서재연 외(2021)는 321명의 제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리조트 개발에 따른 정부신뢰도가 관광개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정부 신뢰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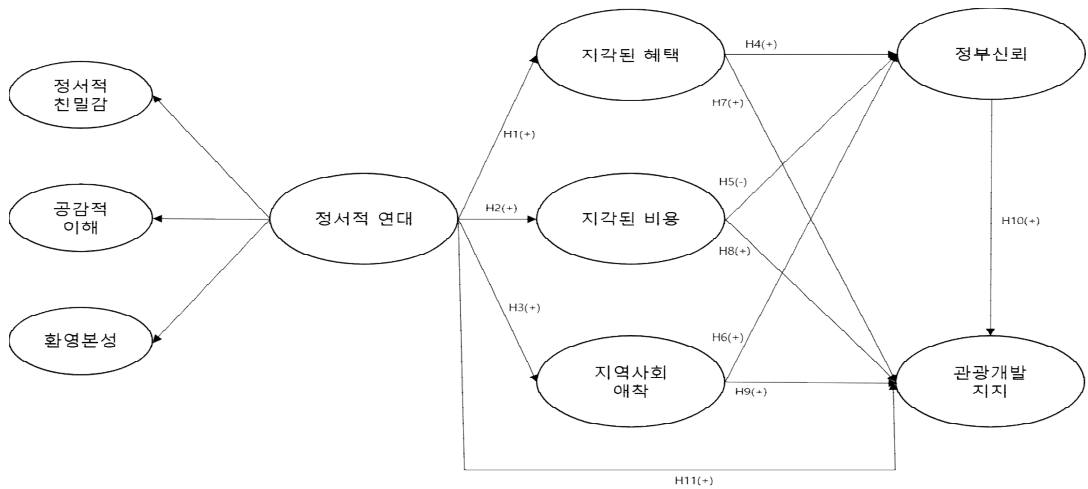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훈(2019)은 제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186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신뢰, 영향인식, 개발지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신뢰는 개발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관광지는 관광명소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다. 주민의 태도가 관광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이 아닌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 간의 정서적 연대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부신뢰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관광개발 지지 세 가지 변수 간 관계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즉, 관광자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 여섯 가지 모든 변수를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서적 연대를 정서적 친밀감과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



〈그림 1〉 연구모형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관광개발로 나타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이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총 11개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관광학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정서적 연대(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라는 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지역(region)은 한정된 공간이라는 공간적 측면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사회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시각화하였다.

1) 정서적 연대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간의 관계

연대는 특정 장소나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공통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집단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상이할 수 있다(황현정, 백지연, 2015). 정서적 연대는 본인과 타인과 이분법적인 관점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Woosnam, 2008), 사회교환이론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정서적 연대는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inkle & Woosnam, 2014). 정서적 연대는 지역주민의 태도나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Woosnam, 2012) 이는 환경적 특성과 감정이 투영된 특별한 공간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상훈, 고동완, 2017).

Aleshinloye (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연대가 지역사회 이익과 사회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서적 연대가 지역사회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비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Woosnam and Aleshinloye (2018)의 연구에서는 Kolache Festival에 참여한 348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호의적 이해와 환영본성은 개인적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사회비용에는 부정적인 영향 관계로 나타났으며, 김정현, 고동완 (2019)은 축제 참여자 352명을 대상으로 축제참여의 마음챙김,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 간 구조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서적 연대를 환영본성, 정서적 친근감, 호의적 이해로 구분하여, 정서적 연대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 지역 사회 애착, 지각된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정서적 연대는 지각된 혜택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정서적 연대는 지각된 비용에 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정서적 연대는 지역사회 애착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편익이 있는 혜택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편익이나 만족과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보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Thibaut & Kelly, 1959).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지출을 의미하는 비용의 의미와 교환 당사자가 경험하게 되는 처벌 혹은 보상을 놓치는 것을 뜻해(Blau, 1964). 이들은 사회교환이론의 전제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교환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혜택이 있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지출되는 비용이 클수록 정부신뢰 수준은 낮아지며, 지역사회 애착이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Zuo et al., 2017; 김세운 외, 2020).

Park et al. (2018)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457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비용, 모바일 결제 신뢰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지각된 혜택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uver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비용이 고객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비용이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도 관련 연구(고동완, 김현정, 2003; 김세운 외, 2020; 이종수, 2015; 조광익, 김남조, 2002)가 진행되고 있다. 고동완, 김현정 (2003)은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주민 288명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애착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김세운 외 (2020)은 창원 마산국제축제에 참여한 327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만족도가 지역애착도,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지역애착도는 지방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이종수 (2015) 또한 장소애착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조광익, 김남조 (2002)도 지역주민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추가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사회교환이론에서 사람은 타인에게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관한 보답을 할 것이라는 교환관계로 볼 수 있다.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도 교환관계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긍·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역사회 애착, 지각된 비용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4: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지각된 비용은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지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지역주민의 태도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비경제

적인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Wang et al., 2020). 경제적 합리성은 경제적인 인식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통해 지역주민의 태도를 규명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혜택과 비용이 있다. 반대로 비경제적 합리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장소애착 등 주민들의 감정이나 정서, 신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뜻한다(Nunkoo et al., 2012). 지역주민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비경제적 합리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긍·부정적인지 인식할수록 관광개발 지지 의사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Sheldon & Abenoja, 2001).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강영애 외, 2012) 이를 규명한 관련 연구(Andriotis & Vaughan, 2003; Lee, 2013; Vinerean et al., 2021)들이 진행되고 있다.

Lee (2013)은 대만 Cigu Wetland에 거주하는 856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환이론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와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지지하였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iotis and Vaughan (2003)은 그리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모두 지각하고 있었으며 편익과 비용 간의 관계성을 통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규명하였다. 또한 Vinerean et al. (2021)은 Romania에 거주하는 344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혜택이 삶의 질과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혜택이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미성 외, 이충기, 강수경, 2008; 한승훈, 2018). 이충기, 강수경 (2008)은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 애착도, 관광개발 지지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부정적 영향, 애착도 모두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의해 관광개발 지지에 정(+),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 애착에 따라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7: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지각된 비용은 관광개발 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지각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관광개발 지지는 지역주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인식하여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관광개발 지지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즉, 이들의 교환관계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를 규명함에 있어 적합한 변수로 알려져 있기에(Erikson & Tedin, 2019; Ouyang et al., 2017) 다수의 선행연구(Chi et al., 2018; Gursoy et al., 2017; Nunkoo & Smith, 2013)에서도 정부신뢰와 관광 개발지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Chi et al. (2018)은 정부의 신뢰가 메가이벤트에 개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Nunkoo and Smith (2013)은 캐나다의 Niagara와 Ontario 지역에 거주하는 39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뢰, 관광개발지지 간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신뢰가 관광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Gursoy et al. (2017)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 해당 1,59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유치위원회의 신뢰가 지역주민의 긍정 부정적 영향인식과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신뢰가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관광개발지지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0: 정부신뢰는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지지 간의 관계

관광개발 지지는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로 관광개발이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한다(Nunkoo & Ramkissonn, 2011). 관광개발 지지는 정서적 연대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정서적 연대가 형성된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itchie & Rigano, 2007; Woosnam, 2012). 다수의 선행연구(Erul et al., 2020; Munanura et

al., 2021; Šagovnović et al., 2022)에서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지지 간 영향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Šagovnović et al. (2022)는 Serbia의 Novi Sad에 거주하는 30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서적 연대가 이벤트 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연대는 이벤트 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Erul et al. (2020)는 Turkey의 Izmir에서 거주하는 성인 74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서적 연대를 정서적 친밀감, 환영본성, 호의적 이해로 구분하여 관광개발 지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친밀감, 환영본성, 호의적 이해 모두 관광개발지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Munanura et al. (2021)는 사회교환이론을 활용하여 United States의 Oregon 1,477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와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연대가 관광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설계

이 연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인근 지역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표본을 네 지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포구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

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역이다. 특히 마포구 중흥대 인근은 한국에서 드물게 자생적 청년문화가 남아있는 곳으로 지역문화가 발전되어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관광재단 (2020)에 따르면 1,750만명의 외국인이 서울시 주 방문지역으로 홍대(2위)를 선택하였으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에서는 홍대는 서울 관광지 중 관광객이 네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라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홍대 인근 지역은 연구자에 따라 홍대 앞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교동, 상수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4). 홍대는 1950~60년대 일반 주거 지역이었으나 홍익미대(1961), 산업미술대학원(1972), 산울림 소극장(1986)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합문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홍대의 장소성과 특수성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홍대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거리 미술제를 개최하였을 때이다. 예술이 흐르는 거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순수예술, 대중문화, 작업공간, 유흥공간이 밀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관광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최준란, 2016). 선행연구를 통하여 홍대는 오랜 시간부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성과 특수성이 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수동과 서교동, 동교동을 선택한 이유는 2021년 12월 마포구 관광특구에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완화하고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관광진흥법, 2022). 이러한 연유들로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은 홍대 인근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판단할 수 있어,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정서적 연대가 다른 지역보다 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나아가 마포구 문화예술관광특구에 속해있는 연남동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는 홍대 중심 상권이 홍대 앞과 합정동에서 연남동과 서교동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조선비즈, 2022.01.06). 연구자는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은 타 마포구 지역 중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연구자가 판단하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설문 문항에 앞서 H대학원과 K대학원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박사 3명 석사 3명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온/오프라인 설문지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인 경우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QR 코드가 탑재된 안내지를 배포한 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판단표본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는 2022년 01월 07일부터 02월 08일까지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348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46부의 응답을 제외한 총 302부(유효표본율: 86%)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정서적 연대의 경우 선행연구(김정현, 2016; 이은지, 2020; Moghavvemi et al., 2017; Woosnam, 2008; Woosnam & Aleshinloye, 2013)를 기반으로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혜택은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Styliadis et al., 2014; Zhu et al., 2017)를 참고하여 4개의 문항으로 도출하였으며 지각된 비용 또한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Styliadis et al., 2014; Zhu et al., 2017)를 바탕으로 4개의 측

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은 선행연구(류예빈 외, 2016; 박상규, 2010; 이정은, 2019)을 참고하여 5개의 문항으로 도출하였고, 정부 신뢰는 선행연구(서재연 외, 2021; Nunkoo & Ramkisson, 2012; Nunkoo et al., 2012)를 기반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개발 지지는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한진성 외, 2018; Moghavvemi et al., 2017)을 바탕으로 5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8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는 거주기간에 대한 측정 항목은 10년 주기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장정순, 임원선, 2015) 신우화, 신우진 (2016)에서도 거주기간에 따라 행정협조, 이익증진 등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5-10년 거주한 주민이 다른 거주 그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10년 주기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0개로 나타났다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1번: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유효 표본들의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타당성, 신뢰성, 내적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함으로

서 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던 측정항목인 정서적 연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HCFA)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구축 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구성개념 간 영향 관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의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64명(54.3%)이었으며 여성은 138명(45.7%)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30대 111명(36.8%), 20대 96명(31.8%), 40대 47명(15.6%), 50대 32명(10.6%), 60대 이상이 16명(5.3%) 순이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미혼이 190명(62.9%), 기혼은 101명(33.4%), 기타는 11명(3.6%)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재학) 140명(45.4%), 대학원 졸업(재학) 73명(24.2%), 전문대 졸업(재학) 51명(16.9%), 고졸이하는 38명(12.6%)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수준은 200~299만원 이하가 99명(32.8%), 500만원 이상 59명(19.5%), 100만원 미만 46명(15.2%), 300~399만원 이하 44명(14.6%), 100~200만원 미만 35명(11.6%), 400~499만원 이하 19명(6.3%) 순이었다. 직업은 관리/사무직이 116명(38.4%), 학생 54명(17.9%), 자영업/개인사업 34명(11.3%), 기타 29명(9.6%), 주부 27명(8.9%), 전문직 24명(7.9%), 판매/서비스업 18명(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상수동 153명(50.7%), 서교동 64명(21.2%), 연남동 52명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302)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64	54.3	직업	관리/사무직	116	38.4	
	여자	138	45.7		전문직	24	7.9	
나이	20대	96	31.8	거주 지역	자영업/개인사업	34	11.3	
	30대	111	36.8		판매/서비스업	18	6	
	40대	47	15.6		주부	27	8.9	
	50대	32	10.6		학생	54	17.9	
	60대 이상	16	5.3		기타	29	9.6	
결혼여부	미혼	190	62.9	거주 일수	서교동	64	21.2	
	기혼	101	33.4		상수동	153	50.7	
	기타	11	3.6		동교동	33	10.9	
교육수준	고졸이하	38	12.6	연남동	52	17.2		
	전문대 졸업(재학)	51	16.9		월 소득	10년 이하	146	48.3
	대학교 졸업(재학)	140	45.4			11-20년 이하	82	27.2
	대학원 졸업(재학)	73	24.2			21-30년 이하	46	15.2
100만원 미만	46	15.2	31년 이하	28		9.3		
100-199만원 이하	35	11.6	거주 일수	10년 이하	146	48.3		
200-299만원 이하	99	32.8		11-20년 이하	82	27.2		
300-399만원 이하	44	14.6		21-30년 이하	46	15.2		
400-499만원 이하	19	6.3		31년 이하	28	9.3		
500만원 이상	59	19.5						

(17.2%), 동교동 33명(10.9%) 순이었으며 거주기간은 10년 이하가 146명(48.3%), 11년 이상~20년 이하 82명(27.2%), 21년 이상~30년 이하 46명(15.2%), 31년 이상이 28명(9.3%)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는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 신뢰,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목적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한 관측변인에 대한 구성이 얼마나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연대 중 정서적 친밀감 1항목, 지각된 혜택 1항목, 지각된 비용 2항목, 지역사회 애착 2항목, 정부신뢰 2항목, 총 8개의 항목이 최종 분석에 제외되었다.

이는 해당 항목이 분산오차가 크고 이 연구의 집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최종 분석에서는 총 24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s)은 0.746~0.978(기준치 $\geq .5$)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은 0.500~0.566(기준치 $\geq .5$), 개념 신뢰도 0.701~0.831(기준치 $\geq .7$)로 나타나 최소 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충분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gozzi & Yi, 1988). 세부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3. 모형 적합도

이 연구에서는 구조관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후 모형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을 판단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이단계 접근법을 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측정항목	Factor Loadings	C.R.	AVE	CR
정서적 친밀감	나는 우리 지역에서 만난 관광객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931	-	.540	.701
	나는 우리 지역에서 만난 관광객들과 가까워졌다고 느껴진다	.820	9.839		
정서적 연대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지역주민처럼 생각한다	.736	-	.548	.784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964	16.628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이해할 수 있다	.909	16.313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978	-		
환영본성	나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99	18.202	.529	.769
	나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는다고 느낀다	.814	18.774		
지각된 혜택	관광개발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창출되었다	.782	-	.501	.748
	관광개발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971	17.073		
	관광개발로 인해 관광인프라가 확대되었다	.746	14.094		
지각된 비용	관광개발로 인해 교통 혼잡이 증가되었다	.759	-	.566	.720
	관광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었다	.936	6.741		
지역사회 애착	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	.841	-	.500	.748
	나는 우리 지역에 만족감을 느낀다	.889	18.146		
	나는 우리 지역이 나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858	17.593		
정부신뢰	나는 정부기관의 결정을 신뢰한다	.855	-	.518	.763
	나는 정부기관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다	.844	16.825		
	나는 마포구 행정기관들을 신뢰한다	.818	16.260		
관광개발 지지	관광개발은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834	-	.553	.831
	관광개발로 인해 공동체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911	19.967		
	관광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많다	.832	17.423		
	관광개발을 지지한다	.844	17.816		

주: Goodness-of-fit statistics: $\chi^2 = 383.028$, $df = 202$, $p < .000$, $\chi^2/df = 1.896$, $NFI = .920$, $IFI = .961$, $TLI = .950$, $CFI = .960$, $RMSEA = .055$

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항목들 간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CMIN/DF, NFI, IFI, TNL, CFI, RMSEA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우종필, 2012; Anderson & Gerbing, 1988). 이 논문의 측정모형에 관한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 $\chi^2=383.028(df=202/p=.000)$, $CMIN=1.896$, $NFI=.920$, $IFI=$

.961, $TLI=.950$, $CFI=.960$, $RMSEA=.055$ 로 모든 모형적합도 수치가 권장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 모형에서는 $\chi^2=308.811(df=123/p=.000)$, $CMIN=2.511$, $NFI=.903$, $IFI=.939$, $TLI=.924$, $CFI=.939$, $RMSEA=.071$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모두 모형 적합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표 3〉 판별타당성 분석

	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
정서적 친밀감	.540							
공감적 이해	.308 _a (.094) _b	.548						
환영본성	.078 (.006)	.220 (.048)	.529					
지각된 혜택	.270 (.072)	.260 (.067)	.135 (.018)	.501				
지각된 비용	-.149 (.022)	-.170 (.028)	-.053 (.002)	-.160 (.025)	.566			
지역사회 애착	.228 (.051)	.162 (.026)	-.037 (.001)	.122 (.014)	-.145 (.021)	.500		
정부신뢰	.227 (.051)	.278 (.077)	.090 (.008)	.500 (.250)	-.298 (.088)	.245 (.060)	.518	
관광개발 지지	.376 (.014)	.278 (.077)	.150 (.022)	.538 (.289)	-.321 (.103)	.076 (.005)	.512 (.262)	.553

〈표 4〉 모형적합도

	χ^2 (CMIN)	df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83.028	202	1.896	.920	.961	.950	.960	.055
구조모형	308.811	123	2.511	.903	.939	.924	.939	.071

다. 세부 내용은 〈표 4〉과 같다.

4. 구조모형 분석결과 및 가설 검증

구조모형 분석 결과 연구 가설인 H1, H2, H3 모두 지지되었다.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표준화계수=.474, C.R.=3.042, $p < .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비용은(표준화계수=-.307, C.R.=-2.523, $p < .05$)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애착(표준화계수=.327, C.R.=2.707, $p < .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표준화계수=.455, C.R.=7.196, $p < .000$)에 정(+)의 영향을, 지각된 비용은 정부신뢰(표준화

계수=-.205, C.R.=-3.461, $p < .000$)에 부(-)의 영향, 지역사회 애착이 정부신뢰(표준화계수=.156, C.R.=2.737, $p < .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H4, H5, H6이 지지 되었다. 또한 가설 H7인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206, C.R.=2.624, $p < .01$)에 정(+)의 영향을, 가설 H8인 지각된 비용이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122, C.R.=-1.965, $p < .01$)에 부(-)의 영향을 미쳐 가설이 지지 되었지만,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166, C.R.=-2.700,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9가 지지 되지 않았다.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254, C.R.=3.881, $p < .000$)에 정(+)

〈표 5〉 변수 간 관계 분석

구분				Factor loadings	C.R.	가설검정
H1	정서적 연대	→	지각된 혜택	.474	3.042**	가설 지지
H2	정서적 연대	→	지각된 비용	-.307	-2.523*	가설 지지
H3	정서적 연대	→	지역사회 애착	.327	2.707**	가설 지지
H4	지각된 혜택	→	정부신뢰	.455	7.196***	가설 지지
H5	지각된 비용	→	정부신뢰	-.205	-3.461***	가설 지지
H6	지역사회 애착	→	정부신뢰	.156	2.737**	가설 지지
H7	지각된 혜택	→	관광개발 지지	.206	2.624**	가설 지지
H8	지각된 비용	→	관광개발 지지	-.122	-1.965**	가설 지지
H9	지역사회 애착	→	관광개발 지지	-.166	-2.700**	가설 지지 실패
H10	정부신뢰	→	관광개발 지지	.254	3.881***	가설 지지
H11	정서적 연대	→	관광개발 지지	.411	2.623**	가설 지지

주 1) Goodness-of-fit statistics: $\chi^2 = 308.811$, $df = 123$, $p < .000$, $\chi^2/df = 2.511$, $NFI = .903$, $IFI = .939$, $TLI = .924$, $CFI = .939$, $RMSEA = .071$

2) * $p < .05$, ** $p < .01$, *** $p < .001$

의 영향을 미쳐 가설 H10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 = .411, C.R. = 2.623, $p < .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H11이 지지되었다. 세부사항은 〈표 5〉와 같다.

V.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지역주민이 정주하는 생활공간인 홍대 인근 지역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간의 영향 관계 규명,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정부 신뢰 및 관광개발 지지간의 영향규명, 정서적 연대와 정부 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서적 연대는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정(+)과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leshinloye, 2015; Woosnam & Aleshinloy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홍대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자 간의 정서적 연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며, 반대로 정서적 연대가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혜택보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욱 크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8; Reuver et al., 2015)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홍대 인근 지역은 관광자로 인헤 얻게 되는 고용 기회 창출, 신사업 증가, 생활 수준 향상 등과 같은 혜택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관광자로 인한 쓰레기 증

가, 소음,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Lee, 2013; Vinerean et al., 2021)와 같은 결과이다. 이를 통해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관광자로 인한 지각된 혜택이나 지각된 비용이 있을수록 관광개발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최열, 임하경, 2005; Um & Crompton, 1987)와 같은 결과이다.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장소애착에 대한 인식은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교육환경, 편리성, 여가 장소, 주택 형태 및 규모 등 근린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박주영, 2021),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Um & Crompton, 1987). 홍대는 삶의 터전으로 지내왔던 상인과 문화·예술인이 기존 문화를 구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은 높아진 임대료와 건물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지역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마포지역포럼을 열어 논의한 일례가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서교동 365번지의 재개발을 막고자 홍대 지역에 거주하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옛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홍보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홍대 인근 지역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기존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 관광개발 지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에 대한 홍대 인근 지역주

민의 정서적 연대와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Nunkoo & Smith, 2013; Šagovnović et al., 2022)와 같은 결과로, 홍대 인근 지역주민은 관광자에 대한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의 신뢰가 관광개발에 있어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홍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목적으로 관광특구에 선정된 지역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지화가 된 홍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전주 한옥마을이나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는 대부분 북촌(北村)과 서촌(西村)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홍대라는 지역(region)의 한정된 공간 속 공간적인 측면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정서적 연대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태도나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등에 치중되어 왔다. 관광연구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정서적 연대라는 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정서적 연대를 정서적 친근감,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의 다차원 척도로 구성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차별성을 지니며 이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자와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는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관광개발지지 등 네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를 규명함으로써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가설들은 홍대 인근 지역에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마포구 행정기관에게 관광개발 시 지역주민에게 어떤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할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지가 필수적이며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관광 개발 전 마포구 행정기관과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의 각 행정복지센터는 홍대 인근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접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주관한 문화예술 나눔 장터와 같이, 지역주민을 주체로 한 관광 활동을 실시한다면 관광객과 홍대 인근 지역주민 간 정서적 연대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마포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포구청은 홍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 관광개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들은 관광개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자체 관광개발 모니터링 제도나 지역주민 관광 소통창구 등을 도입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태 및 환경 보전에 요구가 높아진 만큼 홍대의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나 문화·예술을 담고 있

는 장소들은 환경적, 예술적, 전통문화 등을 고려해 보존성 측면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서로 연계하여 홍대 인근 지역 관광개발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홍대 인근 지역을 연구자 판단에 의해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홍대 인근 지역(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이라는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점은 홍대가 지닌 장소성이라는 관점이 온전하게 투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광지화가 된 홍대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세부 지역을 구분하여 장소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홍대 일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 지지를 확인하는 결과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최소화되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정서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를 고려하여 홍대 일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 지지 등을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지역주민 전체를 감안할 때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며 관광산업 종사자와 비 종사자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홍대 인근 지역주민 중 관광산업 종사자와 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점 차이로 인한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Lee, Jaehyun: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Quantitative Analysis.
Jeong, Chul: Writing(reviewing and editing)
and Validation.

References

- 강영애, 유광민, 김남조 (2012).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환경인식이 생태관광 영향인식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4), 113-136.
- 강현수 (202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 형태 변화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고동완, 김현정 (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고명철 (2018).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신뢰에 의한 지역사회 생활의 질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19-146. <https://doi.org/10.20484/klog.22.2.6>
- 관광진흥법 (2022). 관광진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
- 김보경, 조광익 (2016). 컨벤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관광연구저널>, 30(12), 5-22.
- 김세운, 정현, 정문기 (2020). 지역축제만족도가 지역 애착도와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마산국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31-58. <https://doi.org/10.21026/jlgs.2020.32.2.31>
- 김용희, 박운정 (2018). 지역관광중사자의 고객접촉 수준에 따른 관광지에 대한 공유된 믿음과 관광객과의 정서적 연대 관계의 차이 연구. <관광학연구>, 42(6), 81-100. <https://doi.org/10.17086/JTS.2018.42.6.81.100>
- 김정현 (2016). <축제참여의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김정현, 고동완 (2019). 축제참여의 마음챙김이 정서적 연대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3(7), 49-68. <https://doi.org/10.17086/JTS.2019.43.7.49.68>
- 류예빈, 김이태, 이세준 (2016). 컨벤션 센터의 브랜드 증거와 브랜드 태도, 브랜드 판단 영향 관계: 장소애착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테저연구>, 28(9), 393-410.
- 박상규 (2010). 지역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주민의 지각이 애착도에 미치는 관계: 보령·태안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2(1), 104-115.
- 박상현, 임형택 (2021). 지역축제 품질, 인지도, 지지도 및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진흥연구>, 9(1), 1-17. <https://doi.org/10.35498/kotes.2021.9.1.001>
- 박주영 (2021).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지역 관광개발 사례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33(4), 53-75. <https://doi.org/10.21581/jts.2021.11.33.4.53>
- 서울관광재단 (2020).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관광재단
- 서울문화재단 (2014).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서울문화재단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1). <서울시 한국어행중 서울지역 방문지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서재연, 송상현, 정철 (2021). 정부 신뢰도, 복합리조트 개발 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 간 영향관계: 지역 애착도의 조절효과. <호텔관광연구>, 23(1), 31-49. <https://doi.org/10.31667/jhts.2021.2.86.31>
- 신우화, 신우진 (2016). 거주자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1(3), 135-14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이상훈, 고동완 (2017).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 <관광학연구>, 41(2), 139-161. <https://doi.org/10.17086/JTS.2017.41.2.139.161>
- 이은지 (2020).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이원분, 유용상 (2014). 걷는 길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 지역애착도, 지방정부 신뢰와의 관계: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 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499-513.
- 이정은 (2019). 지역축제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애착도, 성과 및 지역애호도간의 구조적 관계: 2018년 밀양강오뎃세이 공연을 중심으로. <MIICE관광연구>, 19(1), 105-124. <https://doi.org/10.35176/JMTR.19.1.6>
- 이제용, 김영표 (2020). 축제의 매력 속성이 지역 이미지, 장소 애착, 관여도,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2018 안성바우더이 축제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9(5), 187-205.
- 이종수 (2015). 주거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53-60. <https://doi.org/10.6107/JKHA.2015.26.1.053>
- 이충기, 강수경 (2008). 지역주민의 카지노 영향요인에 관한 국제간 비교: 강원랜드와 콜로라도 사례. <관광학연구>, 32(1), 53-71.
- 이충기, 양형은, 이재석 (2011). 한·일 간 카지노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지도 비교분석. <관광연구>, 26(3), 361-376.
- 장정순, 임원선 (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 정승훈 (2019).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인식과 개발지지 관계. <이벤트컨벤션연구>, 35(0), 183-206. <https://doi.org/10.31927/asec.15.3.10>
- 조광익, 김남조 (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조선비즈 (2022.01.06). <MZ세대가 바꾸는 상권 지도... 뜨는 망리단길과 지는 홍대 가보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1/06/KIFLTS6HZE07P CV2V6JGQAVNE/
- 최열,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준란 (2016). <비산업적 문화콘텐츠로서 도시재생 연구: 홍대 앞 책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한지훈 (2011). <여가활동 관여도와 장소애착, 만족도, 장소로열티의 구조관계 연구> [미발행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한진성, 문현철, 윤지환 (2018).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지속적 관광개발지지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42(10), 93-109. <https://doi.org/10.17086/JTS.2018.42.10.93.109>
- 황현정, 백지연 (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서·사무경영연구>, 24(1), 99-122.
- Adongo, R., Choe, J. Y., & Han, H. (2017). Tourism in hoi an, vitenam: Impacts, perceived benefits, community attachment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7(2), 86-106. <https://doi.org/10.1080/15980634.2017.129434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ndriotis, K., & Vaughan, R. D. (2003). Urba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cret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2), 172-185. <https://doi.org/10.1177/0047287503257488>
- Aleshinloye, K. D. (2015). Examining residents' and tourists' emotional solidarity with one another at the Osun-Osogbo Festival: A modified durkheimian model. [Unpublished working paper]. Texas A&M University.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

- 665-690. [https://doi.org/10.1016/0160-7383\(92\)90060-3](https://doi.org/10.1016/0160-7383(92)90060-3)
- Ball, A. D., & Tasaki, L. H. (1992). The role and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 155-172. https://doi.org/10.1207/s15327663jcp0102_04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https://doi.org/10.1007/BF02723327>
- Blau, P. M. (1964). Justice in social exchange. *Sociological Inquiry, 34*, 193-206. <https://doi.org/10.1111/j.1475-682X.1964.tb00583.x>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1), 9-27. <https://doi.org/10.1007/bf01255416>
- Chi, C. G. Q., Ouyang, Z., & Xu, X. (2018). Changing perceptions and reasoning process: Comparison of residents' pre-and post-event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70*, 39-53. <https://doi.org/10.1016/j.annals.2018.02.010>
- Collins, A. M., & Loftus, E. F.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6), 407-428. <https://doi.org/10.1037/0033-295X.82.6.407>
- Durkheim, É. (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Ancienne librairie germer Baillière et cie.
- Erikson, R. S., & Tedin, K. L. (2019).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Routledge*.
- Erul, E., Woosnam, K. M., & McIntosh, W. A. (2020). Considering emotional solidar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behavioral intentions to support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8), 1158-1173. <https://doi.org/10.1080/09669582.2020.1726935>
- Gursoy, D., Yolal, M., Ribeiro, M. A., & Panosso Netto, A. (2017). Impact of trust on local residents' mega-event perceptions and their support.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3), 393-406. <https://doi.org/10.1177/0047287516643415>
- Hasani, A., Moghavvemi, S., & Hamzah, A. (2016). The impact of emotional solidarity on residents' attitude and tourism development. *PLOS ONE, 11*(6): e015762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57624>
- Homans, G. C. (1958).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 597-606. <https://doi.org/10.1086/222355>
- Huang, Y. H., & Stewart, W. P. (1996). Rural tourism development: Shifting basis of community solidar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4), 26-31. <https://doi.org/10.1177/004728759603400404>
- Inskoop, E. (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VanNostrand Reinhold*.
- Kim, W., Jun, H. M., Walker, M., & Drane, D. (2015). Evaluating the perceived social impacts of hosting large-scale sport tourism event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ourism management, 48*, 21-32.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10.015>
- Lee, T. H. (2013). Influence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34*, 37-46. <https://doi.org/10.1016/j.tourman.2012.03.007>
- McCool, S., & Martin, S.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 29-34. <https://doi.org/10.1177/0047287516643415>

- 59403200305
- Moghavvemi, S., Woosnam, K. M., Paramanathan, T., Musa, G., & Hamzah, A. (2017). The effect of residents' personality, emotional solidarity, and community commitment on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63*, 242-254. <https://doi.org/10.1016/j.tourman.2017.06.021>
- Morales, P. C., Agüera, F. O., López-Guzmán, T., & Cuadra, S. M. (2018). Community attachment and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rough the attitudes of the local population: A case study in puerto plata, dominican republic.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9*(2), 173. <https://doi.org/10.2478/mjss-2018-0037>
- Moorman, C., Deshpande, R., & Zaltman, G. (1993). Factors affecting trust in market research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Marketing, 57*, 81-101. <https://doi.org/10.1177/002224299305700106>
- Munanura, I. E., Needham, M. D., Lindberg, K., Kooistra, C., & Ghahramani, L. (2021). Support for tourism: The roles of attitudes, subjective wellbeing, and emotional solidarity.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6.
- Nunkoo, R. (2015). Tourism development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Tourism Management, 46*, 623-634.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08.016>
- _____, & Ramkissoon, H. (2011). Developing a community support model fo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3), 964-988. <https://doi.org/10.1016/j.annals.2011.01.017>
- _____, & Ramkissoon, H. (2012). Power, trust, social exchange and community supp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2), 997-1023. <https://doi.org/10.1016/j.annals.2011.11.017>
- _____, _____, & Gursoy, D. (2012). Public trust in tourist institu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3), 1538-1564. <https://doi.org/10.1016/j.annals.2012.04.004>
- _____, & Smith, S. L. J. (2013). Political economy of tourism: Trust in government actors, political support, and their determinants. *Tourism Management, 36*, 120-132. <https://doi.org/10.1016/j.tourman.2012.11.018>
- Ouyang, Z., Gursoy, D., & Sharma, B. (2017). Role of trust, emotions and event attachment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Tourism Management, 63*, 426-438. <https://doi.org/10.1016/j.tourman.2017.06.026>
- Park, J., Amendah, E., Lee, Y., & Hyun, H. (2018). M-payment service: Interplay of perceived risk, benefit, and trust in service adoption.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29*(1), 31-43. <https://doi.org/10.1002/hfm.20750>
- Reuver, M., Nikou, S., & Bouwman, H. (2015). The interplay of costs, trust and loyalty in a service industry in trans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adoption.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4), 694-700. <https://doi.org/10.1016/j.tele.2015.02.008>
- Ritchie, S. M., & Rigano, D. (2007). Solidarity through collabor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0*(2), 129-150. <https://doi.org/10.1080/09518390601159610>
- Šagovnović, I., Pivac, T., & Kovačić, S. (2022). Examining antecedents of residents' support for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ject-event's sustainability perception, emotional solidarity, community attachment and brand 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13*(2), 182-202. <https://doi.org/10.1108/IJEFM-02-2021-0009>
- Sheldon, P. J., & Abenoja, T. (2001). Resident attitudes i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waikiki. *Tourism management, 22*(5),

- 435-443. [https://doi.org/10.1016/S0261-5177\(01\)00009-7](https://doi.org/10.1016/S0261-5177(01)00009-7)
- Sher, K., Bagul, A. H. B. P., & Din, S. (2015). The influence of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involvement towards resident's support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by mediating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costs. *Tourism & Environment, Social and Management Science*, 15, 133-138. <https://doi.org/10.5829/idosi.aejaes.2015.15.s.217>
- Stylidis, D., Biran, A., Sit, J., & Szivas, E. M. (2014).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residents' place image and perceived tourism impacts. *Tourism management*, 45, 260-274.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05.006>
- Thibatu, J. W., & Kell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John Wiley*.
- Um, S., & Crompton, J. L. (1987).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27-29. <https://doi.org/10.1177/004728758702600105>
- Vesey, C. M., & Dimanche, F. (2000). Urban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and its impac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ew Orleans.
- Vinerean, S., Opreana, A., Tileagă, C., & Popşa, R. E. (2021).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residents'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Sustainability*, 13(22), 12541. <https://doi.org/10.3390/su132212541>
- Wallace, R. A., & Wolf, A. (2006).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Expanding the classical tradition. 6th edition. Pearson.
- Wang, Q., Wang, J., Zhou, X., Li, F., & Wang, M. (2020). How inclusive leadership enhances follower taking charge: The mediating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role of traditionality.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3:1103. <https://doi.org/10.2147/PRBM.S280911>
- Welch, E. W., Hinnant, C. C., & Moon, M. J. (2004).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391. <https://doi.org/10.1093/jopart/mui021>
- Winkel, C. M. V., & Woosnam, K. M. (2014). Sense of community and perceptions of festival social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5(1), 22-38. <https://doi.org/10.1108/IJEFM-01-2013-0002>
- Woosnam, K. M. (2008). Identifying with tourists: Examining the emotional solidarity residents of Beaufort County, South Carolina have with tourists in their community. [Unpublished working paper]. Clemson University.
- _____. (2011). Testing a model of durkheim's theory of emotional solidarity among residents of a tourism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5), 546-558. <https://doi.org/10.1177/0047287510379163>
- _____. (2012). Using emotional solidarity to explain resident's attitudes about tourism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3), 315-327. <https://doi.org/10.1177/00472875114103>
- _____, Aleshinloye, K. D. (2013). Can tourists experience emotional solidarity with residents? Testing durkheim's model from a new perspectiv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2(4), 494-505. <https://doi.org/10.1177/0047287512467701>
- _____, Aleshinloye, K. D. (2018). Residents' emotional solidarity with tourists: Explaining perceived impacts of a cultural heritage festival.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42(4), 587-605. <https://doi.org/>

10.1177/1096348015584440

- Xue, L., Kerstetter, D., & Buzinde, C. N. (2015). Residents' experiences with tourism development and resettlement in luoyang, china. *Tourism Management, 46*, 444-453.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08.005>
- Zeffane, R., & Zarooni, H. A. M. (2012). Empowerment, trust and commitment: The moderating role of work-unit centr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29*(1), 332.
- Zhu, G., So, K, K, F., & Hudson, S, (2017). Inside the sharing economy: Understanding consumer motivations behind the adoption of mobile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9*(9). <https://doi.org/10.1108/IJCHM-09-2016-0496>
- Zuo, B., Gursoy, D., & Wall, G. (2017). Residents' support for red tourism in china: The moderating effect of central govern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51-63. <https://doi.org/10.1016/j.annals.2017.03.001>